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차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예수는 부활하셨다.

-오늘 I, II, III 부 예배시 성찬식, 찬양 예배시 찬양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환성을 올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울고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를 찾고 있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순간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순 투성이의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불신과 불안 모든 슬픔과 거짓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소되고 참 믿음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교회는 I, II, III 부 예배시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또 저녁 찬양 예배 시에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새벽예배는 「한티공원」에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잔치

-4월 26일(목)-

우리교회 입당 10대행사 중 일환으로 우리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106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4월26일 열린다.

탈북난민 위로 및 일천만명 서명돌파 감사예배

-4월 27일(금)-

탈북난민 보호 U.N청원 일천만명 서명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얻어 5월초에 U.N방문단을 파송하고 4월27일엔 우리교회당에서 탈북자 약200여명을 초청 위로회도 갖는다.

지난주 이모저모



교구 일꾼 수련회 - 준비된 자들로 자라가기를



2001년도 교구 일꾼 수련회



19학기 목회자 세미나 시작 -강의에 몰입한 목회자들



주부대학 개강 - 평생교육의 초석이 되기를



컴퓨터실 개소 - 전 교인의 전산교육을 위한 첫발



살롬 경로대학 개강 - 노년을 아름답게



육사 세례식 (4월28일 오후2시)

해마다 육군 사관학교 세례식을 협찬한 우리교회는 오는4월28일(토)오후2시 육사교회당에서 생도 및 성도들에의 세례식을 집례한다. 이날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정성어린 음식 준비로 이나라 간성이될 사관생도들의 사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공연

-4월28일(토)오후5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열리는 뮤지컬 공연이 우리교회 양겔로스연극부가 마련한 '호테니우스' 제목을 갖고 열린다.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뮤지컬 공연은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열리게 됨으로 성도들의 많은 관람을 바라고 있다.

장애인주간 - 특강 연다.

4월 22일 오후1시에 장애인 주간을 맞이하여 에바다부에서는 특강을 갖는다.

제1강은 < 고도난청인의 재활>(강사 안인호 집사) 제2강은 <농아인, 장애인,에 대한 예절> (강사 홍유미간사)에 대한 특강에 교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이번주의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개역개정판 마가복음 11:10)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Mk 11:9-10)

2001년 부활절 메시지



이종운 목사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2:32)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은 불의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선고장이 되고 택함을 입은 이들에게는 생명의 초청장이 되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엄숙한 임명장이 된다.

첫째, 부활의 복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선고장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돌무덤 속에 인봉해버린 예수의 시체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보고자가 무덤을 경비하던 군병들인데다가 무덤 또한 텅 비어있으니 부인도 시인도 할 수 없어 경황 중에 군인들을 매수하여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았다. 간담이 얼어붙고 오금이 조이는 부활의 소식에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선고장을 받고 그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둘째, 부활의 복음은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초청장이 된다.

홀어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자 다시 모여왔다. 실로 부활은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끌어드리는 강한 힘이 된다. 부활은 죄의 사멸이요 구원의 확증이고 불의의 패망이며 진리의 승리고 사망의 사망이며 생명의 개가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복음은 강한 흡인력이 있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만인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한다.

셋째, 부활의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엄숙한 임명장이 된다.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이 마다 이를 전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부활을 본 사람이나 들어서 믿는 사람 치고 함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 하다가 죽기까지 했다. 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 땅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복음이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초청장이 되게 하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끌려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새로운 임명장이 되게 하자. 그래서 그 부활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 결국 무서운 선고장이 될 것이다.

주여, 부활의 복음을 홍보로 만드는 어리석음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계절에

남여노소 모두가

**** 10대 윤효은 (17세, 고등부, 3교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서 일이 많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한번에 얻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의 인도에 따라 진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체험을 이 부활절을 통해 허락해 주시길.

**** 20대 신정민 (29세, 청년부, 아멘관현악단 4교구)**

얼마 전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나비 특집이 생각난다. 예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세 단계의 껍질을 벗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인 번데기를 벗고 푸른 하늘로 날아가는 나비를 보면서,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일이 떠올랐다. 작은 생명에 거듭남의 비밀을 감춰두신 주님의 섭리와 나의 벗어머릴 껍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순간이었다.

**** 30대 이경화 집사 (36세, 청년부 교사, 9교구)**

이제까지 내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심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에 가려 있었다. 기쁘고 감사한 희락보다 대속죄로 화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비중을 두었던 내게 다시 태어난 역사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삶에서 되새김질하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 40대 이명희 집사 (48세, 가브리엘 찬양대, 3교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말씀하시듯 부활절이라 더 감격스러우니 천국 문 열어달라. 감격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거울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 50대 김명옥 권사 (59세, 시몬, 할렐루야 성가대, 9교구)**

요한복음 20장 11-18절을 보면, 빈 무덤에 들어간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다. 내가 만난 말씀 중에 그 어떤 기사와 이적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그 옛날의 마리아가 바로 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쳤느냐"고 묻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줄도 모르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정스레 불러주셨다. "마리아야." 하고, 그는 부활하신 내 주, 예수님이셨다.

**** 60대 안창휘 집사 (66세, 현금계수부, 5교구)**

인생 황혼의 긴 여정을 달려오면서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오직 세상의 향락에 치우쳐서 주님의 고통과 사랑을 마음속에 뉘우침 없이 보낸 것을 자복한다. 주님의 참사랑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는 부활절이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한다.

**** 70대 김종리 권사 (76세, 7교구)**

이 세상의 욕심과 근심, 걱정, 시기와 질투, 헛되고 헛된 수암은 소욕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은 마음의 부활이라는 정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수님은 영육이 부활하셨지만, 이 마음만이라도 진실한 부활을 거듭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곽승은, 곽지우, 전영신, 박은진, 김선영, 신예민, 신선영 자매
- 대학부, 청년부에서 잘 뿌리 내리도록

70인전도대 보고

이남북 권사(4교구)

나이 70을 바라보며 거울속의 나의 모습은 주름도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여, 무엇을 하기에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기 소침해 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강하여 집니다. 나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천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근처 아파트 단지, 골목골목을 돌며 전도하는 날입니다. 이규정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순례자, 설교데이프, 선물용 수건을 들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보통 3-4명 정도의 태신자를 얻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강박하여 열매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열심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태신자를 얻어 주중에는 전화로 심방을 하며 계속적으로 교회로 인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언터리로 연락처를 가르쳐주어 실망도 하지만 나의 전함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과정 속의 씨앗으로 여기며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 부모와 형제, 친구와 친척들이 줄줄이 인도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열매맺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걸 사람은 더욱 더 후회하여 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력이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고픈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새로왔어요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곽승은(청년부),곽지우,전영신,박은진,김선영,신예민,신선영(대학부)-

새가족부에 등록하고 대·청부에 소속된 자매들과 짬을 내어 그들의 근황을 알아보았다.

*우회 교회에 등록하게된 특별한 동기화도 있으신지요?

-승은/지우:고모님(곽숙 권사) 따라 나오게 됐어요. 새가족부 전과정을 수료하고 난 뒤에도 선생님(제오복 집사)께서 매주 전화주셔서 부끄럼을 많이 타는 데도 잘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동네에 멋진 예배당이 생겨서 한번 와보게 됐는데 등록도 하고 새가족부도 나가고 대학부까지 나오게 됐어요.

*새가족부와 대학부를 다 나가니까 힘들거나 불편할 점은 없어요?

-은진:민정이 친구인데 오늘 따라 나왔어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서먹했는데 선생님께서 교회 예배와 대학부 참석을 직접 챙겨 주셔서 정착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대학부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김선영:다음 주부터 나갈 예정인데 이미 새가족부에서 선생님을 통해 몇몇 친구를 소개받아 서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오복 집사: 매력있는 김한영, 이영아 친구(선생님은 학생들을 친구라 호칭했음.)가 이 자리에 빠졌는데 대학부에 잘 다니고 있어서 이 친구들도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려는 분은 안 계시요?

-신선영/예민: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매주 전화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나는 믿음의 친구들에 대한 느낌은?

-성신: 자기들끼리 뭉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좋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교류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폭 넓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오복 선생님은 이 친구들을 새가족부, 대·청부, 봉사 부서에 잘 정착하도록 도우려하면 무척 힘드셨겠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화도 있으신지요?

-잘 안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연주회가 있다 길레 우이동에서 좁고 어두운 길을 찾아 흥대 입구까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죠. 다음날 교회에 꼭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역시(?) 안 타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후기: 매 주일 대학부, 청년부, 찬양대를 돌며 많은 친구들이 잘 적응하는지를 확인하고 안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연락하여 사랑을 들으며 기도해주시며 이들을 돕고 계시는 선생님을 둔 친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탐방-갈렘찬양대

슬픔을 위로하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갈렘 찬양대는 서울교회에 모든 초상집을 찾아다니고 있는 찬양대이다.

상조위원회(민순구 장로) 소속 갈렘 찬양대(지휘 이태상 집사, 반주 백정순 권사)는 지난해 10월에 20명의 대원으로 창단되어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장례식에 참석하여 천국환송예배의 찬양 순서를 담당했다.

지휘를 맡은 이태상 집사는 갈렘 찬양대의 지휘를 요청 받고 잠시 망설였으나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환송예배에서 찬양을 지휘한다는 일이 귀히 생각되어 쾌히 순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꾸만 바뀌는 대원들 때문에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사실 장례는 예고되지 않는 일이므로 꼭 마음에 두고 있다가도 장례식장이 너무 멀거나 하여 새벽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장례식의 찬양은 음악성보다는 은혜로운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장례식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렘 찬양대를 보고서 큰 감동을 받을 때, 장례 찬양으로 선교의 역할도 감당한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한편 반주를 맡고 있는 백정순 권사는 손수 장만한 반주기를 차에 싣고 다니며 피아노가 없는 장례식에서 찬양 반주를 할뿐만 아니라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은은한 소리로 찬송을 연주하여 장례식장을 차분하고 기록하게 만드는 일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조위원회 민순구 장로는 갈렘 찬양대원 모두는 갈렘과 같이 믿음의 큰 자들과 초상집에 가기를 즐거워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니 믿음의 큰 사람들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렘 찬양대에서 환영한다고 한다. 허숙 (편집부)

젊은 성극팀 앙겔로스

하인구 <대학부>

저녁 무렵 7층 703호실...갑자기 터지는 고함소리. "잠깐~~!! 그 부분 대사 다시 한번 쳐봐! 그 느낌이 아니잖아!!!" "형 이 부분의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하죠?" 서울교회 성극팀 『앙겔로스』에서 나오는 소리들이다. 앙겔로스란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란 뜻이다.

이번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호테니우스]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공연을 앞두고 우리 앙겔로스 성극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성극팀은 지도교사 윤종덕 선생님을 비롯해 모두 20여명의 젊은이들이 섬기고 있다. 청년부의 성기연 형제를 필두로 성극을 좋아하고 성극에 재능이 있는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모두 모였다. 이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빼어난 연기력으로 발탁된 지체도 있고, 자신의 달란트와 전공을 살려 무대와 의상, 조명, 작곡, 연출, 음악 등 각 분야에서 합

력하는 지체들도 있다.

우리가 이 성극에 빠져들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극을 좋아하는 지체들이 모였고, 패기와 열정으로 이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젊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얼마 안 남은 공연이라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순간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다. 처음으로 하는 큰 규모의 공연, 우리 스스로도 기대가 크다.

하나님의 일들이 성극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싶은 분은 4월 28일 오후 7시...서울교회로 오시길 바란다. 앙겔로스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부활절엔 왜 서로 달걀을 나누는 거일까요?

달걀은 모양새만 보아도 너무나도 천연적으로 잘 포장된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달걀은 기독교와 상관이 있기까지는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쁘게 색칠하고 염색하여 꾸민 달걀은 세계적으로 부활절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달걀은 일단 갱생, 부활의 역동적인 힘을 상징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겨울 동안 굳은 땅이 봄이 되면 풀리는 것처럼 얇은 껍질로 둘러 쌓인 달걀 안에서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달걀은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오기도 했고 불행한 것을 막아주는 기운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림 이후로는 달걀은 그저 자연적인 갱생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람의 거듭남을 상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들은 달걀을 마치 무덤에서 일어난 주님과 같은 상징으로 읽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에드워드 1세 아내의 계좌기록을 보면 1290년 18펜스를 450개의 색칠한 금박달걀을 부활절 선물로 지출하였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색칠한 부활절 달걀은 중세시대 영국의 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얇은 껍질 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달걀을 아름답게 색칠하여 선물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유태서 (편집부)

동정

- 이종윤목사는 4월 20일 (목) 명지학원 부활절 예배 설교를 한다.
- 신미숙 전도사는 4월 19일 (목) 오후5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 이영주집사, 임선철 집사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
- 전기집장로 (2교구) 수지로 이사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김연옥 권사 (결혼식을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 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베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